

페퍼스, 두 자릿 수 승수·4위 진입 노린다



‘해결사’ 박정아, 6000득점 역대 2호 경신 관심
강력한 공격 앞세운 이한비·테일러 등 활약 기대

재정비를 마친 페퍼스가 ‘두 자릿 수 승수’를 목표로 후반기를 시작한다.
2024-2025 도드람 V리그 전반기를 구단 최다승인 ‘6승’으로 마무리 한 페퍼저축은행 페퍼스가 후반기 치열한 순위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여자부 5위에 자리한 페퍼스(6승 12패·승점 19)는 9일 오후 7시 화성종합체육관에서 4위 IBK기업은행(11승 7패·승점 31) 알토스와의 원정 경기로 후반기 막을 올린다.
기업은행이 승점 12점 밖에 있지만 후반기 18경기 가 남은 만큼 4위 진입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페퍼스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에게 3-2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23-2024 시즌 상대 전적 ‘전패’였던 현대건설을 꺾은 페퍼스, 기세가 남다르다.
장소연 선임 감독을 필두로 비시즌을 준비해 온 페퍼스는 전반기 상대 6개 구단 중 4개 구단(현대건설, 정관장,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에 1승 이상을 기록했다.
강력한 전반기를 보낸 페퍼스는 승리가 없는 기

업은행, 흥국생명을 상대로 ‘최약체’ 타이틀 탈출에 나선다. 후반기 첫 상대가 기업은행인 만큼 이번 경기 승리로 기세를 잇는 게 중요하다.
여자부 개인 통산 6000득점 역대 2호 경신을 앞둔 주장 박정아의 활약도 관심사다.
현재 5982득점을 기록 중인 박정아는 팀의 위기 상황마다 중요한 득점을 올려주는 ‘해결사’로 등판했다. 전반기 18경기 동안 33.5%의 공격 성공률로 220득점을 올린 그는 현대건설과 치른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개인 최다’ 27득점을 더했다.
6000득점에 18점을 남겨둔 박정아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기록을 달성하고, 승리까지 이끄는 게 페퍼스의 최상의 시나리오다.
박정아는 후반기 팀의 ‘두 자릿 수 승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역할이 막중하다.
승리를 만들기 위해 박정아를 중심으로 테일러·이한비로 이뤄진 페퍼스의 삼각편대가 강한 서브로 상대 진영을 맹폭해야 한다.
이한비와 테일러의 활약도 관련 포인트다.
‘든든한 공격수’ 이한비는 전반기 18경기에서 모두 출전해 193득점(공격 성공률 35.4%)을 올렸고, V



2024-2025 도드람 V리그 전반기를 구단 최다승인 ‘6승’으로 마무리 한 페퍼스가 후반기 치열한 순위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페퍼스 선수단. <구단 홈페이지 캡처>

리그 적응을 마친 외국인선수 테일러는 13경기에 203득점(35.0%)을 장식했다.
전반기 블로킹 4위를 기록한 아시아쿼터 장위와 ‘디그 장인’ 한다혜가 탄탄한 수비에 힘을 보태준다면 페퍼스의 고공행진에 불가능이란 없다.
막내의 반란을 도모하는 페퍼스는 후반기를 위한 담금질로 휴식기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짧은 휴식 이후 웨이트와

러닝 등 강도를 올려 체력 보강을 실시했다”며 “전반기를 토대로 후반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기 우리 선수단은 상대에게 리드를 당하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잡으려는 의욕과 끈끈한 수비가 좋았다. 그 부분은 유지하면서 서브의 강도를 높이고 블로킹의 위치 선정과 손 모양 등을 신경 써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창단 이래 한 시즌에 6승 이상을 올린 적 없던 페퍼스가 이제는 봄배구를 바라본다.
장 감독은 “시즌 전에 목표로 선정했던 ‘두 자릿 수 승수’를 위해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 많은 응원 보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안병훈, 소니오픈 우승 재도전 “퍼트에 집중 또 집중”

생애 첫 PGA 투어 우승 기회

안병훈(33·사진)은 지난해 1월에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을 잊지 못한다.
당시 그는 1-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63타를 쳐 키건 브래들리, 그레이슨 머리(이상 미국)와 공동 1위 동타를 이뤘다.
PGA 투어 데뷔 후 준우승만 4차례 기록했던 안병훈에게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의 기회가 찾아온 것.
그러나 안병훈은 18번 홀(파5)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1.3m 버디 퍼트를 놓쳐 생애 다섯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우승은 12m 버디 퍼트를 성공한 머리에 돌아갔다.
안병훈은 아쉽게 놓쳤던 소니오픈 우승에 다시 도전한다.
안병훈은 10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4야드)에서 개막하는 소니오픈에 출전해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노린다.
하와이 현지에서 훈련 중인 안병훈은 “한국의 연말은 어수선했는데, 올해는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새해 인사를 한 뒤 “소니오픈은 지난해 좋은 성적을 냈던 대회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우승을 갈망했다.
이어 “대회 코스는 페어웨이가 딱딱하고 러프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그린이 좁아서 짧은 퍼트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PGA 투어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지난해는 안병훈에게 의미 있는 한해였다.
개막전인 더 센트리에서 4위에 올랐고, 소니오픈에서 2위를 했다. 또 10월엔 국내에서 열린 DP월드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김주형을 제치고 우승했다.
안병훈이 우승한 건 2015년 DP월드투어 BMW 챔피언십 이후 9년 만이었다.
안병훈은 새 시즌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PGA 투어 우승과 메이저 대회 톱 5 진입,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꼭 하고 싶다”며 “마스터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지난해 마스터스에선 퍼트를 잘 쳤다면 톱10 성적을 기대할 수 있



었는데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안병훈은 지난해 마스터스에서 2오버파 290타로 공동 16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였고 자신의 최고 성적도 달성했다.
안병훈은 한국 남자 골프 전설 최경주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분야의 선구자는 참 대단하다. 그런 점에서 최경주 프로님이 참 존경스럽다”며 “내 또래 선수들은 최경주 프로님을 보고 자랐다. 한국 선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는데, 아직도 좋은 실력을 보여주셔서 참 대단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동계체전, 사전경기 빙상종목 11일 시작

정식 대회 2월 18~21일

제106회 전국동계체전 사전경기가 11일 빙상 종목으로 시작된다.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동계체전에는 전국 약 4000여명의 동계 스포츠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있는 실력을 뽐낸다.
대회 종목은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등 총 8개다.
정식 대회 기간은 오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다. 빙상 세부 종목인 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경기는 본 대회 일정보다 한 달 앞선 1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빙상 경기는 쇼트트랙으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빙상장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진행된다. 20일부터 23일까지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빙상장에서 피겨 경기가 펼쳐진다.

이어 다음 달에는 7개 종목 선수단이 본 경기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메달 싸움을 벌인다.
‘빙판 위의 체스’ 컬링 경기는 2월 16일부터 충북 진천선수촌 컬링장과 강릉컬링센터에서 나뉘어 열린다.
2월 18일부터는 강릉하키센터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평창 알데아에서 스키와 바이애슬론 경기가 각각 치러진다.
얼음벽을 앞에 두고 펼치는 산악 아이스클라이밍 경기는 2월 20일부터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엄청난 순간속도를 자랑하는 썰매 경기인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은 2월 21일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펼쳐진다.
이번 동계체전의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대회 개회식은 2월 18일 오후 5시 평창 올림픽스타에서 진행되며, 종합 시상식은 2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 81조원...역대 최고

종사자 수는 46만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3년 기준 스포츠 산업조사 결과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81조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체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스포츠 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2022년 78조 1060억원에서 3.8% 증가한 81조 3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스포츠 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7조와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스포츠 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12만6186개 기업 중 1만4006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45만8000명으로 2022년 44만명에 비해 4.1% 늘었고, 사업체 수도 12만 6186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4.7%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스포츠서비스업 3.9%, 스포츠 시설업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온라인 판매가 9.7% 증가한 가운데 스포츠 신발 도매업 9.3%, 운동 및 경기 용구 소매업 6.3% 등 유통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업이 25.0%나 늘었고, 스포츠 경기회(프로야구·프로축구 등)도 역시 20.6% 성장했다. 시설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테니스장·탁구장 등)이 1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